

이계선생문집(伊溪先生文集) 남몽뢰(南夢騫)

伊溪先生文集

南夢騫 (1620 ~ 1681) ; 字 仲遵, 號 伊溪, 本貫 英陽. 居 義城. 奉化.

木板本(續集은 石印本). - 慶北義城 : 伊溪堂, 昭和 12(1937).

6 卷 3 冊, 續集 3 卷 2 冊(合 5 冊) : 遺墨, 四周雙邊 半郭 18.7 x 15.2 cm, 有界, 10 行 20 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31.4 x 20.7 cm.

조선 중기의 문신이며 학자인 남몽뢰의 시문집이다. 봉화의 이계리에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통사랑 해준(海準), 어머니는 안동 권씨로 군자감직장 지(誌)의 딸이다. 어려서 문장을 조달하여 문명이 있었다. 1642(인조 20)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651(효종 2)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세자시강원설서에 기용되고, 이어서 연원도(連原道) 찰방을 거쳐 예조정랑이 되었다.

1655년 김성일의 시호(諡號)를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뒤에 고성과 임실의 군수를 역임하면서 고을 수령으로 저질러서는 안 될 일들을 모아 「거관불망기(居官不忘記)」를 지어 자신과 후임관리들을 훈계하였다. 백성의 부세를 견감하고 농사를 권장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1666(현종 7)년 진주목사가 되었으나 예제(禮制)의 개혁을 상언했다가 왕의 노여움을 당해 파직되었다. 그 뒤 이계정사(伊溪精舍)를 지어서 후진을 교육하였다. 특히, 사학(史學)에 밝아 국조이후 당시까지 역사적인 사실을 「동국통감부(東國通鑑賦)」와 「동국소승(東國小乘)」을 지어서 밝히고, 「기해예송전말(己亥禮訟顛末)」을 지어 숙종 초에 있었던 예론시비의 근원을 밝혔다. 죽은 뒤 9년 만에 예제가 자기의 주장대로 고쳐지자 손자 윤주(胤胄)가 상언하여 복관되었다. 후일 이조참판에 추증되었으며, 안동의 병산서원에 제향되었다.

이 문집은 1778(정조 2)년 증손 성천(聖天)과 현손 상의(象毅) 등이 간행하였는데, 책머리에 이상정의 서문이 있다. 권 1.2에 부(賦) 2편, 시 173수, 권 3에 소(疏) 2편, 서(書) 3편, 잡저 2편, 권 4에 잡저 4편, 서(序) 5편, 권 5에 기(記) 8편, 발(跋) 8편, 명(銘) 2편, 전(箋) 1편, 상량문 4편, 권 6에 제문 8편, 묘표 2편, 묘갈지(墓碣識) 6편, 행장 1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판본은 뒤에 1937년 의성의 이계당(伊溪堂)에서 간행한 것이다. 문집 중 「동국통감부(東國通鑑賦)」는 단군조선 이래 우리나라의 역사를 핵심 줄기만 간추려 부(賦)로 읊은 것인데, 깊은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독특한 작품이다. 시는 시체별로 분류되지 않고, 저작 시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잡저의 「동국소승(東國小乘)」도 주목할 만한 글이다. 그 서두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군장(君長)이 없었는데 당요(唐堯) 25년 무진(戊辰)에 신인이 태백산 신단목 아래로 내려오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세워 임금으로 삼았다. 이가 곧 단군(檀君)이며 국호를 조선이라고 하였다. 단군은 처음 평양에 도읍을 정하였고, 후에 백악(白岳)으로 옮겼다가 은나라의 무정(武丁) 8년 을미에 아사달로 들어가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다. 이 글 역시 저작자의 역사인식의 한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저작자가 임실군수로 있을 때

쓴 「거관불망기(居官不忘記)」는 수령으로서 잊어서는 안 될 치민(治民)과 치리(治吏)의 요령을 32 조목으로 설명한 것이다.

序 ; 李象靖.

目錄.

卷之 1. 賦 ; 奉和金進士(之重)次幽懷, 東國通鑑.

詩.

卷之 2. 詩.

卷之 3. 疏 ; 請解柳稷罰, 請 贈諡金鶴峯.

書 ; 與眉叟許相公(穆), 與金博士天休, 別紙.

雜著 ; 東國小乘, 居官不忘記.

卷之 4. 雜著 ; 乙亥禮論始末, 策問, 遊俗離山錄, 許應祥事蹟.

序 ; 南征別語, 庚申稷憲, 家牒, 四同契, 沙村里約重修.

卷之 5. 記 ; 伊溪堂, 晚松堂, 水溪書院, 間韶鄉校聖殿重修, 觀德亭, 碧梧堂, 茅山亭.

跋 ; 溫泉廬 駕時畫屏題名, 喪服考證, 歐蘇手柬, 題宋氏家藏契帖, 家牒,
新舊譜英毅公事蹟, 英毅公以下密直公以上世系, 權皆玉詩編.

銘 ; 石鼎, 三寅劍.

箋 ; 冬至賀.

上樑文 ; 鳴鶴書院, 柏谷書堂, 新寧鄉校聖殿, 元興洞舊院廟.

卷之 6. 祭文 ; 白鶴書院 退溪李先生 錦溪黃先生, 始祖壇所, 文憲公李先生(瑀),

熊川滄死將士, 瓢隱先生, 瀨齋申先生, 舅氏, 李漫翁.

墓表 ; 成均進士間韶金公, 先妣孺人權氏.

墓碣銘 ; 承仕郎昌寧曹公, 軍資監直長權公, 處士權公, 先妣孺人權氏,

宣教郎霞村申公(垝), 伊溪散人自銘.

行狀 ; 先考通士郎卷之.

續集.

序 ; 李家煥, 權秉燮.

目錄.

卷之 1. 詩.

卷之 2. 疏 ; 應 旨.

書 ; 答金士興(邦杰), 答孫敵萬(萬右佳), 與金晦叔, 寄子明夏.

雜著 ; 殿策題, 擬周冢宰周公進無逸表, 大同廳記, 友鄉契帖後識,
書先祖密直府君事實下.

上樑文 ; 景出山影堂, 碧梧堂.

行狀 ; 八代祖考嘉靖大夫判會寧府事府君, 六代祖考通訓大夫行樂安郡守府君.

遺墨.

卷之 3. 附錄 ; 年譜, 批答, 諭文, 南征別語, 祭文, 行狀, 墓碣銘, 伊山社廟宇上樑文,
奉安文, 豎碣告由文, 伊溪堂重修記.
跋 ; 南佑龍, 南炳斗.

輓懶齋申公 悅道○己亥

旅軒門下早聞仁。誠敬工夫老且新。韞櫝深藏珠待價。尺腰能屈蠖宜伸。差池三品官何薄。薰善千人道不貧。安得蔡邕無愧筆。爲揚徽德鎖貞珉。

次申方叔 塲 盆梅韻

君家一見小盆梅。魂夢無時不往來。清致豈嫌幽致並。孤芳猶壓衆芳猜。風枝月上疑佳客。雪骨春生已化胎。我欲扁舟湖裏去。連根毋惜共含杯。

輓孤松申公 弘望○癸丑

十年來往緒言承。何幸龍門早獲登。對酒未曾爲醉客。論文無處不呼燈。家傳詩禮聲名重。業繼箕裘諳藝稱。湖海臨民多惠化。霜臺飛簡想風稜。藍關暮雪連東路。秦嶺孤雲隔幾層。仕宦非心由世隘。行藏有義奈君徵。官如工部三資少。壽比尼丘一歲增。萬事卽今渾似夢。輓歌淒斷愴難勝。

祭懶齋申先生文

惟公之家。世德之懿。王父兄弟。孝行卓爾。迨公先考。人品偉異。世共嗟惜。不滿年位。乃克有子。男三女二。惟公之生。於第爲季。克紹前人。淵源有自。天資超邁。氣宇和粹。水月襟懷。冰霜風致。溫而能剛。寔天全畀。恬靜清疎。不爲物漬。夙承家學。知所用志。旋登旅門。提掖是被。服膺周旋。惟恐失墜。景慕退陶。常切欽跂。聖學十圖。夜誦朝肄。伊闕正脈。不出敬義。熟復朱書。不離造次。踐履既篤。所造亦邃。及登科第。學優而仕。清官顯職。無不歷試。到處而治。令聞無已。薇垣柏府。風采是倚。北城南州。龜石斯峙。晚歲丘林。惟取適意。世路紛華。浮雲蔽履。一向深縮。如鳥斂翅。再見除書。堅臥不起。養精治病。左書右史。靜得其壽。謂享遐禩。云何不淑。天不憖遺。士慟靡依。邦增殄瘁。念我小子。早襲盛晬。小有成就。無非公賜。仍許婚姻。不以卑鄙。網繆密勿。朱陳奚啻。長篇短札。月無不至。隻僮單騎。時或來侍。闕然相思。見之則喜。仲春之初。西行千里。歷路辭公。爲我興喟。握手相別。別語可記。那知別後。公忽我棄。踽踽獨立。不禁涕泗。聊薦菲薄。文以代贄。惟公不亡。鑑此誠意。

宣敎郎霞村申公墓識銘 并序

聞韶縣古有隱君子曰悔堂申先生諱元祿。以孝聞於朝。旌其閭。悔堂之子曰佺。亦以孝名於鄉。是有子曰懶齋先生諱悅道。遊於旅軒張先生之門。得聞脩己治人之術。官至司憲府掌令。懶齋娶鶴峯金先生之子法之女。以萬曆丁巳正月辛卯生男。名曰圾字定叔。定叔生而秀異。自幼孩已有成人度。受經屬文。有聲庠塾間。士大夫之賢而文者。一見莫不嗟賞而奇愛之。於是藻思日進而華聞日益大。四與計偕^P未成名。再試禮部皆不第。己亥遭懶齋喪。柴毀日甚。人或疑其傷生。而定叔不悔也。服闋財一月而不起。實辛丑七月十一日也。嗚呼。定叔其亦死於孝也邪。其年十二月九日。葬于縣西金磊里卯向之原。其弟博氏狀其行。使其孤應錫來請余以銘其窆者。噫余其忍銘定叔之窆邪。世之秉筆者不無其人。而猶以得余一言爲重者。豈不以余爲定叔友而知定叔平生者。亦莫余若也。噫余其忍不銘定叔之窆邪。義不可辭。謹按其狀。定叔鵝洲人也。鵝洲之申。皆祖按廉使。其世系本末之所繇。則鶴沙金公已識於懶齋墓^P矣。今不復著。定叔以穎悟之質。早得家庭之訓。其平生行己。無一不出於正。而惟以孝友爲百行之源。蚤歲喪其先妣。又喪其伯氏。終身悲慕。愈久不衰。事懶齋公盡誠敬。兄弟之間。怡怡如也。懶齋公嘗患痔。定叔侍其側。蚤夜不解帶。劑和烹飪。必躬必親。及其屬纊之夕。欲斷指用藥。爲子姪輩所尼。常以不得伸其至情。爲無涯之痛。懶齋累典州郡。素履清寒。定叔又不事產業。簞瓢屢空。而處之裕如也。爲文無所不能。而尤長於駢儷。一時文士無出右者。懶齋公亦以青氈之業託之。不幸以戚而亡。天將何以勸人子之孝^P乎。定叔以父任累階宣敎郎。自號霞村散人。娶豐山金氏察訪昌祖之女。生三男五女。男長應錫。卽求銘者。次興錫。次幼。女三人已適人。士人鄭惟興，曹壽昌，金命賢其壻也。曹出二男。金出一女。內外子孫十一人。天將以是報定叔也邪。凡狀之所載如此。與余前所竊論者。實相發明。謹敍而并書之。系之以銘。銘曰。

惟君家世孝友。德之載之其後。君承之勢欲振。執父喪殞厥身。而永歸藏於是。我爲文銘孝子。

輓虎溪申公 適道

聞說吾鄉又失公。壽躔仁宅一時空。二三小子於何^P考。九十光陰到此窮。篁館胡爲留夜月。薇亭無復襲春風。身縻海徼難奔走。千里緘詞愧素衷。

南征別語[申圾]

^P丙申八月之望。南子五馬之行。愁細雨於龍山。離思鬱結。掛片帆於漢浦。別魂悠揚。去路自然東西。人生長是離別。伏惟使君。清標玉峙。雅性蘭薰。妙年英聲。負個儻奇偉之志。立朝重望。抱仁民愛物之才。青瑣丹墀。佇見朝夕之啓沃。朱幡阜蓋。旋膺令宰之榮光。爰擊節而辭朝。遂脂

轄而出宿。睠彼任縣。實維名區。藹豪傑之雲興。人才府庫。兼形勝之天險。表裏山河。浮于海達于江。租賦充羨。登於山臨於水。觀覽無窮。南原纔二息程。身遊廣寒樓上。雲峯隔數疊岵。足躡大捷碑前。于時金風起而宵露溥。秋寒已緊。木葉黃而暮蟬咽。客意偏驚。官路南歸。雲樹積兩地之思。郵亭東望。煙霞生故鄉之悲。嗟乎。盈虛消息。尙覺造化之爲勞。歧路風塵。豈免離合之不定。所冀推赤心而置腹。若身之瘡。念蒼生而察眉。猶己之痛。循良擅譽。寧久十年之淮陽。冰蘖持身。可擢三司之顯秩。序何止也。詩以係焉。

遠客本多思。况復與君別。中宵耿不寐。空階秋雨滴。

祭文[外曾孫申震標]

嗚呼。公之捐館。一紀將匝。年代已逝。九原難作。渺茲晚出。承顏無因。公之懿行。粗聞于人。剛介之操。可範頽俗。博洽之文。亦宜華國。遭時罔極。抱冤而沒。凡厥聽聞。孰不嗟惜。况在孫曾。傷慟何極。隔世追慕。馨歎靡接。時一念之。祇自沾纓。矧余私愆。寔百恒情。昔者先君。少育于公。恩斯勤斯。鞠之懷中。衣之食之。長於膝下。雖云外孫。義同生我。大恩未報。公已下世。先君不幸。又至早逝。孤露餘生。號叫無逮。語及前事。淚盡血繼。今因改窆。佳城再發。衣冠宛然。典刑如昨。攀櫬一慟。心腸欲裂。曾未幾日。復就窀穸。單盃薄奠。詎盡微誠。公若有知。冀鑑虫鳴。嗚呼哀哉。

收彩嗚呼先生而止於斯。一寄一歸。誰寶戶之盈虛。瞬息屈伸呼吸倚空長嘯。與化鳥徒。古今一息物。我同歸。窮通不計。短長焉知。嗟惟吾道不絕如線。惟公得之。抱負有腴。經綸莫施。衣鉢誰傳。殉身以歿。孰云非天。小子晚生。猶及登門。屢陪杖履。幾接溫諄。春風秋月。目擊無際。皆縻關楨。凍釋冰解。中念恩契。申以婚姻。眷念益加。情義益親。嶺樹秦雲。山川或間。長書短札。誠意未散。昔在丁未。先考禍延。罪逆殘喘。無望生全。每於訊復。反復教詔。曰。母傷生。以免不孝。自惟無狀。多不及禮。苟存視息。而及三歲。儻不死滅。庶可卒業。荷意今朝。遽爾梁折。儀刑永隔。何所依歸。失聲長號。淚若泉飛。卽欲奔哭。謹稽前軌。曾弔張喪。沙哭栗几。旋念居喪。士所兢兢。從汗從隆。小子安能。茲停前計。不敢投足。以此負公。壹飯再噎。山瓢代酌。野蔌並設。掩涕絨辭。遠寄誠血。

伊溪集六
五
祭懶齋申先生文

惟公之家。世德之懿。王父兄弟。孝行卓爾。迨公先考。人品偉異。世共嗟惜。不滿年位。乃克有子。男三女二。惟公之生。於第為季。克紹前人。淵源有自。天資超邁。氣宇和粹。水月襟懷。冰霜風致。溫而能剛。寔天全昇。

恬靜清疎。不為物漬。夙承家學。知所用志。旋登旅門。提掖是被。服膺周旋。惟恐失墜。景慕退陶。常切欽跂。聖學十圖。夜誦朝肄。伊閩正脈。不出敬義。熟讀朱書。不離造次。踐履既篤。所造亦邃。及登科第。學優而仕。清官顯職。無不歷試。到處而治。令聞無已。薇垣柏府。風采是倚。北城南州。龜石斯峙。晚歲丘林。惟取適意。世路紛華。浮雲蔽屐。一向淡縮。如鳥斂翅。再見除書。堅臥不起。養精治病。左書右史。靜得其壽。請享遐禩。云何不淑。天不憖遺。士慟靡依。邦增殄瘁。念我小子。早襲盜昧。小有成就。無非公賜。仍許婚姻。不以卑鄙。

伊溪集六

六

綢繆密勿。朱陳奚啻。長篇短札。月無不至。隻僮單騎。時或來侍。闕然相思。見之則喜。仲春之初。西行千里。歷路辭公。為我興喟。握手相別。別語可記。那知別後。公忽我棄。踴躍獨立。不禁涕泗。聊薦菲薄。文以代贄。惟公不巳。鑑此誠意。

祭舅氏文

惟靈早得賢師。妙契道奧。精思刻厲。實地允蹈。心得體用。學非口耳。涵省主敬。斷制以義。真積力久。繩直準平。若鳥時用。可作世程。人莫我知。名不及聞。殉身以歿。天道亦紊。賚也小子。久忝趨侍。提耳警惰。誘

泣血謹敘。

宣毅郎霞村申公墓識銘并序

聞韶縣古有隱君子曰梅堂申先生諱元祿以孝聞於朝旌其閭梅堂之子曰佐亦以孝名於鄉是有子曰懶齋先生諱悅道遊於旅軒張先生之門得聞脩己治人之術官至司憲府掌令懶齋娶鶴峯金先生之子澐之女以萬曆丁巳正月辛卯生男名曰坂字定叔定叔生而秀異自幼孩已有成人度受經屬文有聲庠塾間士大夫之賢而文者一見莫不嗟賞而奇愛之於是藻思日進而華聞日益大四與計偕

伊溪集六

孟

未成名再試禮部皆不第已亥遭懶齋喪柴毀日甚人或疑其傷生而定叔不悔也服闋財一月而不起實辛丑七月十一日也嗚呼定叔其亦死於孝也邪其年十二月九日葬于縣西金磊里卯向之原其弟埽氏狀其行使其孤應錫來請余以銘其窆者噫余其忍銘定叔之窆邪世之秉筆者不無其人而猶以得余一言爲重者豈不以余爲定叔友而知定叔平生者亦莫余若也噫余其忍不銘定叔之窆邪義不可辭謹按其狀定叔鵝洲人也鵝洲之申皆祖按廉使其世系本末之所繇則鶴沙金公已識於懶齋墓

矣。今不復著。定叔以穎悟之質。早得家庭之訓。其平生行已。無一不出於正。而惟以孝友為百行之源。蚤歲喪其先妣。又喪其伯氏。終身悲慕。愈久不衰。事懶齋公。盡誠敬。兄弟之間。怡怡如也。懶齋公嘗患痔。定叔侍其側。蚤夜不解帶。劑和烹飪。必躬必親。及其屬續之夕。欲斷指用藥。為子姪輩所尼。常以不得伸其至情。為無涯之痛。懶齋累典州郡。素履清寒。定叔又不事產業。簞瓢屢空。而處之裕如也。為文無所不能。而尤長於駢儷。一時文士無出右者。懶齋公亦以青氈之業託之。不幸以戚而亡。天將何以勸人子之孝乎。

伊溪集六

三五

乎。定叔以父任累階。宣教郎。自號霞村散人。娶豐山金氏。察訪昌祖之女。生三男五女。男長應錫。即求銘者。次興錫。次幼女三人。已適人。士人鄭惟興。曹壽昌。金命賢。其壻也。曹出二男。金出一女。內外子孫十一人。天將以是報定叔也邪。凡狀之所載如此。與余前所竊論者。實相發明。謹敘而并書之。系之以銘。銘曰。惟君家世孝友。德之載之。其後君承之。勢欲振。執父喪殞。厥身而求歸藏。於是。我為文銘孝子。

伊溪散人自銘

散人降生萬曆庚申。南姓夢齋。字曰仲道。自號伊溪。